

군산·익산·전주 평준화 3개 지역 일반고 신입생 첫 동시 미달사태

정원 전년대비 2.7% 줄이고도 1만110명 모집에 9601명

3곳 평균 경쟁률 0.946대 1…전주 지원률 가장 낮아

군산시, 익산시 등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의 2018년 신입생 지원자가 모두 정원에 미달했다. 전북지역 3대 평준화지역인 군산, 익산, 전주에 동시에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3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 익산, 전주의 일반고 원서 접수율 마감한 결과, 1만110명 모집에 9601명이 지원해 0.94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군산이 1620명 모집에 1601

명 지원해 0.985대 1을 기록했고 익산은 1800명 모집에 1722명 지원해 0.9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주는 6690명 모집에 6278명이 지원해 0.93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이 인구 감소 등을 감안, 이들 평준화지역의 신입생 모집 정원을 전년에 견줘 277명(2.7%) 줄였음에도 미달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평준화지역 3곳 모두에서 정원을 채우

지 못하게 된 것은 1979년 평준화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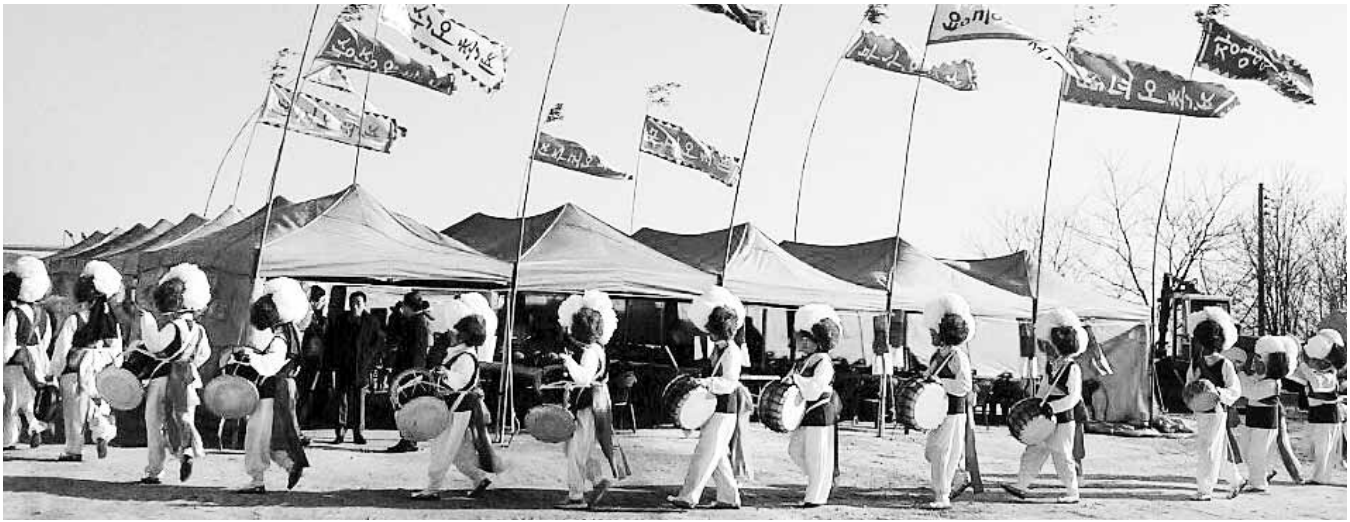
앞서 전주는 2011년, 군산은 2006년과 2011년, 익산은 2015년 등에 미달한 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으로 수년 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경우 4632명 모집에 3546명이 원서를 내 76.6%의 지원율을 보였다. 전년도 84.3%보다 8%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학생 모집난이 우려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익산=유정영기자 yiy@



별교꼬막 풍어 기원 용왕제 재현

씻김행사 등 옛 방식 그대로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협력업체인 어업회사법인 (주)별교꼬막이 2018년 풍어를 빌며 지난해 12월 31일 보성군 별교면 장암리에서 제1회 별교꼬막 용왕제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용왕제는 지역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어민들의 염원을 담아내기 위해 (주)별교꼬막이 옛 방식 그

대로 재현해 눈길을 끌었다.

용왕제는 오전 육상용왕제를 시작으로, 전통한복 민속 공연, 해상 꼬막양식장 풍어제, 씻김행사, 해신행사, 쥐불놀이 및 방생, 풍물좌신밧기 등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다.

용왕제는 용왕에게 뱃길과 어민의 무사와 풍어를 비는 제의로, 갯제·독제·어장제·용신제·용왕먹인다·서낭군·대동군·

배연신굿·배신굿·별신굿·풍어제·사해제·사해 사독제 등으로도 부른다. 신라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신안군 흑산도 수리마을의 용왕제, 해남지역의 방주용왕송신제 등이 유명하다.

서흥석 (주)별교꼬막 대표는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기원하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용왕제는 준비했다”며 “이 용왕제가 전국민에게 별교 꼬막을 알려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익산시청사 공공건축물 리뉴얼 대상지 선정

익산시청사가 새롭게 단장된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사업’ 3차 선도시업 대상지로 익산시청사 등 전국 공공건축물 3곳을 선정했다.

이번 선도시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 사용연수는 42년으로,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이 떨어지고 관리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

립하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익산시청사는 분산된 청사 건물들이 통합되고 광장과 문화시설, 공원 등을 갖춘 주민친화적인 복합 공공청사로 개발된다.

익산시는 현 청사 부지와 청사 후면에 1만9000㎡의 공간에 청사와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익산=유정영기자 yiy@

“옥정호 수상 레포츠단지 개발 포기하라”

정읍 시민단체 용역 중단 요구

식수원에 비점 오염 초래 주장

정읍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옥정호를 수상 레포츠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읍시의회와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동학 농민혁명계승사업회, 정읍시 농업인단체연합회 등 70여개 단체는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수상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옥정호의 수상 레포츠단지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2만 정읍시민의 식수 원수가 되는 옥정호에 보트를 띄우는 수상레저 산업은 중금속을 포함한 비점 오염(유동적 오염원에 의한 오염)이 늘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생기 정읍시장이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직위가 상실돼 공석인 만큼 새로 당선된 정읍시장이 관련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용역 발주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시, 임실군, 순창군 등 옥정호 수변 3개 시·군은 지난 2016년 8월 전북도 중재로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

할 때는 시·군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는 조건으로 시·군 상생협력을 선언한 뒤 임실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을 2015년 해제했다.

임실군 전체 토지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옥정호의 상수보호구역 해제는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정 의견에 따른 것으로,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올해 옥정호에 수상 레포츠 시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용역비 3억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친환경농업 육성해 농업경쟁력 키운다

순창군, 생산기반확대 등 추진

순창군이 친환경 농업경쟁력 높이기에 나섰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친환경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기반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친환경 농업인 소득안정지원, 농업환경 보전, 과학농업실현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30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유기농업 자재 등을 지원하고 컨설팅과 유기농 버포트 이상 시범단지, 친환경 농업 아카데미 등을 운영한다.

유통소비 육성을 위한 전략 사업으로 10개 학교에 학교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을 진행한다.

친환경 버유통업체 물류비와 쌀 소비

장려금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과 소비 활성화에 나선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3억여원 지원과 인증비·생산장려금·친환경 농업 직불금 지급 사업이 추진된다.

친환경 농업의 핵심요소인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 농가 안전성 감사비, 자원화센터 약취 제거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종자 육종연구실·토양미생물 연구실 등을 운영해 친환경 농업의 성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농업경쟁력의 핵심은 친환경 농업에 있다”면서 “친환경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근기자 jyng@

목포상의 신년인사회 “남해안 르네상스 열자”



목포상공회의소는 지난 2일 호남현대목포 컨벤션홀에서 ‘2018 신년인사회(사진)’를 갖고 서남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목포상의 김호배 회장은 이날 ‘일자리

창출! 기업이 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열린 인사회에서 “남해안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해 지혜를 한데 모아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남원 신관사도 부임행사 등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15건 발표

남원 신관사도 부임행사와 진도 토요민속여행 등이 올해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에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2018년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15건을 선정, 발표했다.

전남·북 지역에서는 ▲남원 신관사도 부임행사 ▲진도 토요민속여행 등 2개 행사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지방의 주요 관광 거점에서 개최되는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을 육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추진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

군산 시간여행마을

‘맛의 거리’ 지정

근대역사박물관~동국사

군산시는 3일 근대문화기 유산이 밀집한 옛 도심권의 시간여행마을 일대를 ‘맛의 거리’로 지정했다.

맛의 거리는 근대역사박물관~월명동주민센터~동국사 구간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특화음식 지정점 등 100여곳의 음식점이 밀집해 관광객이 즐겨 찾는다는 게 군산시 설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맛의 거리를 지정,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친절하고 위생적인 곳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 · 전원주택지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들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두암동 2층 남향주택 대지 248㎡ 건평 154㎡ 사할도 적합 3억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향층을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북향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 · 매도 · 교환

- 장흥군 수문해수목장 판선 적합 3458㎡ 5억3천
- 담양군 청평 의항리 9544㎡ 공청동 적합 평당 45만원
- 신안군 압해읍 도촌리 전원주택들 적합 3206㎡ 6600만원
- 순창 북흥면 전 3천여평 포함 산 75780㎡ 4억2천
- 금남로5가 대로변 상업지 2010㎡ 대형건물 적합 54억
- 함평읍 물마리해수목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월산동 신축3층 상가주택 대지 175㎡ 건물 247㎡ 5억7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8천
-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평 596㎡ 보증금 5천에 월600선 13억2천
- 월산동 버스도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4억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영암 월출산 밑 판선 땅 1578㎡ 경관좋은 4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마트와 주택(3층) 189㎡ 5억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주월동 무등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담보용 남구 송하동산 22556㎡ 감정 2억4700 매도 1억2천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천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좋은 2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127 건평 297 감정 10억7천 은행 6억 교환가능 7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 - 420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팟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14억

문의 H.010-3605-5000

공장부지 매매

평동 1차 산업단지 내

40,000m²

▶매매가 상담 후 결정
▶분할 가능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 장 현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9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안구 하남산단9번로 45(창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6년

광주일보

창사66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아트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